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본궤도

## 산불 피해 저소득자 근로장려금 국세청, 두달 앞당겨 내일 지급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4월10일 기준)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가운데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다만 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357억원(43만 가구) △특별재난지역 주민 286억원(3만 가구) 등 총 3857억원(46만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18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오는 28일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오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은 국세청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오는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요건이 충족됐지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 새로운 비즈모델 발굴 지원 인천TP, 참여 기업·대학 모집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바이오 정보 데이터와 SW(소프트웨어)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TP는 다음달 17일까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연구회'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 등을 모집한다.

행동 및 신체 정보 기록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과제(RFP-제안요청서)를 내놓을 연구회는 SW·ICT(정보통신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운영된다.

인천TP는 연구회 11곳 내외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회 참여 대상은 인천지역 SW·ICT 기업, 대학 등으로 SW융합클러스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열어보거나, 인천TP SW진흥센터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바이오산업과 SW기술을 융합한 의료, 금융, 통신, 에너지 등 전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ICT 기반의 제품·서비스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우수과제를 선별해 사업·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 사업 추진 3년 만에 착공계 제출...곧 현장 측량·가설물 설치 공사비 1조7900억 공장 4곳 들어서... 3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계가 제출되는 등 추진 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용인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현재 국공유지를 포함해 사업구역의 토지를 70% 확보한 상태이며,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현장 측량과 가설시설물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식은 다음달 중 현장 여건을 고려해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로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사업비 약 1조7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을 건설한다.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한 후부터 지난해 3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착공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은 않았다.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시는 물론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부단

히 소통하고 협의한 끝에 합의점을 찾아 사업 추진 3년 만에 착공에 이르렀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SK하이닉스와 50여 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주로 3만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100여 명의 인구 유입을 비롯해 513조 원의 생산과 188조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와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 반도체 중공 장비 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을 유치한 데 이어 우수 반도체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용인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항철도의 직통열차가 내달 30일 운영을 재개한다. 직통열차가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정차없이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항철도의 직통열차가 내달 30일 운영을 재개한다. 직통열차의 재개는 지난 2020년 4월1일 중단된 이후 2년여 만이다.

26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국

제선 일상회복안에 따라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철도의 내달 30일부터 직통열차의 운영을 재개한다.

공항철도의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인

# 공항철도 직통열차 다시 달린다

## 코로나로 2년여간 중단... 내달 30일부터 운영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출국심사서비스 재개

인천공항1터미널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무정차 운행하는 급행열차이다.

앞서 공항철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입국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면서 지난 2020년 4월1일부터 직통열차의 운영을 중단했고, 올해 1월1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운행재개가 한차례 연기되었다.

공항철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시설이 좋은 직통열차를 일반노선에 배치해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다.

다만 내달 30일부터 직통열차의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일반노선의 투입에서 제외된다.

내달 30일부터 투입되는 직통열차는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왕복 5회 운행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열차 운항이 원상복구되는 것이다.

또한 내달 직통열차의 재개로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탑승수속과 출국심사서비스도 재개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운영하는 공항철도가 기존 6개의 항공사도 이곳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 대전, 아동급식카드 단가 2000원 올려 8000원

## 광역시지자체 중 최고액... 하루 결제액 3만원으로 증액

대전시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 이용단가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급식단가를 2000원 인상하고, 하루 결제한도도 현재 1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액으로, 보건복지부 권고단가인 7000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아동 1만 3977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단가 인상은 성장기 아동들이 양

질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급식카드 가맹점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88개 가맹점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2만 7428개 가맹점으로 2만 5840개의 가맹점이 늘었다. 이는 BC카드 가맹점과 연계된 음식점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을 늘리면서 소비패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편의점 이용률은 약 70%였다.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편의점 이용률은 약 36%로, 전년 동월 대비 34%p 감소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일반음식점 이용률은 64%로 전년(57%)보다 높아졌다.

높아진 단가로 아동들이 다양한 일반음식점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급식선택권이 폭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아동들이 연령대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학생은 8000원, 고등학생은 9000원으로 연령별 차등 단가 적용도 검토 중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 호종이·무고미·까우니, 강화 알리미로 활약

## 관광공, 관광 3총사 홍보 활용... SNS 통해 여행명소 소개

한국관광 대표캐릭터 호종이·무고미·까우니가 강화군 홍보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천 강화군과 한국관광 대표캐릭터 '킹덤프렌즈'를 활용한 지역관광 홍보 협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킹덤프렌즈는 2020년 공사가 개발한 한국관광 홍보 캐릭터로, 생일을 맞아 인간세상에 놀러온 왕 '호종이(호랑이)', 호위 무사 '무고미(곰)', 마법사 '까우니(까치)'다.

공사는 킹덤프렌즈를 앞세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한국의 관광지와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 해외에 홍보해 왔다. 지난해에는 심

가포리 관광캐릭터인 '멀리'와 협업, 양국 관광지를 공동 홍보했다.

공사와 강화군은 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뽑힌 고려궁지 등 강화군의 다양한 여행명소들을 홍보하는 콘텐츠와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호종이·무고미·까우니가 강화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 웹툰도 조만간 선보인다. 오는 6월에는 군내 관광지에서 킹덤프렌즈 캐릭터와 합



계 인증샷을 찍어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킹덤프렌즈를 찾아라' 이벤트도 열린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 청주·충주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 166억원 들여 의료원 시설 개선·장비 보강... 양질의 진료 제공

충청북도는 국비 86억원, 도비 80억원 등 총 166억원을 투입해 청주·충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으로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의료원은 50억원을 들여 △정신 뇌혈관센터 등의 증축 사업은 54억원이 투입된다. 뇌심혈관 질환과 재활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춰 적정 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음압격리병실에는 12억원이 투

입된다.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 여건 확보와 중증환자 적정 치료를 위해서다.

충주의료원은 116억원을 들여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치료센터 증축 △기속사 증축 △치유공원 테크 교체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의료장비 23종 등을 진행한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심뇌혈관센터 등의 증축 사업은 54억원이 투입된다. 뇌심혈관 질환과 재활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춰 적정 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1